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2월 9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9.(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2. 6.(금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김규성 과장 (044-203-4080)	담 당 자	위성원 사무관 (044-203-4086)

외국인투자 '5년 연속 200억불' 조기 달성

- 산업부, '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점검회의에서 밝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성윤모)는 '19.12.9(월) 10:00에 외국인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함께 KOTRA에서 **외국인직접투자 동향점검회의**를 개최함

○ 금번 회의는 올해 **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점검**하고, 내년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**정책방향을 논의**하기 위하여 마련

외국인직접투자 동향점검회의 개요

- **목적** : '19년 외투 동향·프로젝트 점검 및 '20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논의
- **일시/장소** : '19.12.9(월) 10:00 / KOTRA(서울 서초구)
- **참석자** : 산업부 투자정책관(주재), KOTRA,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, FDI연구센터, 한국외국기업협회 등

□ 점검 결과, 지난 12.2일 기준 203억불을 기록하여 **'5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불'**을 달성하였음

* ('15) 209.1 → ('16) 212.9 → ('17) 229.4 → ('18)269.0 → ('19.12.2) 203.1억불

○ 금년 **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감소세**를 보였던 외국인투자 실적이 **하반기에 회복세로 전환***되었고, 특히 4분기에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집중 신고됨에 따라 **조기에 200억불을 달성**할 수 있었다고 평가

□ **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달성의 의의**는 다음과 같음

① 어려운 대외 여건*으로 **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****된 상황**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성사되는 등 **한국 시장에 대해 외국인투자가들의 높은 평가가 지속**되고 있으며,

* 미-중 무역분쟁, 일본 수출규제, 브렉시트,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국제 분업체계 약화 등
** '18년 글로벌 FDI는 3년 연속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(1.3조불)를 기록

② **소재·부품·장비, 신산업, 고급소비재**(K-푸드, K-뷰티 등) 분야 활발한 투자로 **우리산업 고도화**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**외국인직접투자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**되고 있을뿐만 아니라,

【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주요사례 】

❶ 소재 · 부품 · 장비

- **(램리서치)** 첨단 반도체 장비 개발을 위한 국내 R&D 센터 구축(미국, 1.4억불)
- **(유미코아)**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분야 글로벌 선두기업의 생산거점 구축(독일, 0.2억불)
- **(V사)**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용 씰 제품의 현지 생산법인 설립(일본, 0.1억불)

❷ 하이테크 신산업

- **(H사)** 간암, 대장암 등 주요 암종을 타겟팅하여 치료하는 항암제 개발(미국, 1.6억불)
- **(V사)** 클라우드와 AI를 결합한 독자적 운영체제 개발을 위한 투자(홍콩, 0.3억불)
- **(S사)** 초음파 진단기기 등 의료용 첨단기계 제조를 위한 투자(중국, 0.4억불)

❸ 고급소비재

- **(미미박스)** 온·오프라인으로 국내 브랜드 화장품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(싱가포르, 0.1억불)
- **(해브앤비)**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은 K-뷰티 브랜드에 대한 지분투자(영국, 11.3억불)
- **(컬리)** 콜드체인 형태로 신선식재료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 확대(케이만, 0.6억불)

③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**정부의 다각적인 활동**과 **관련 제도 개선 노력**이 **실질적인 성과**로 나타나고 있음

□ 점검회의를 주재한 **정대진 투자정책관**은 "**정부와 지자체, 유관기관이 원팀(one team)**을 이루어 노력한 결과 **외국인투자가 5년 연속 200억불을 돌파**했다"고 평가하고, 연말까지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외국인투자 유관기관들에게 당부

□ 참석자들은 외국인투자의 **장기적 상승세**를 이어가면서, 우리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, 제조업 르네상스, 수소경제 활성화 등 **우리 경제의 고도화**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 유치에 더욱 **역량을 집중**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

○ **외국기업협회 이승현 회장**은 "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FDI로 인정하는 **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개정안***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·확정되면, 외국기업의 **한국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**으로 예상된다"고 하면서, 협회도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언급

* 외촉법 개정안 주요내용 : 외국인투자의 인정범위를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재투자까지 확대(국회 산중위·법사위 旣통과(11월말), 본회의 상정 예정)

□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**장기적인 상승 모멘텀**을 이어가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**다각적인 노력을 경주**해 나갈 계획

○ 특히, **소재·부품·장비** 등 **국민경제효과**가 높고 **산업고도화**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**강화된 현금지원**(지원비율: 30→40%), 신속 인·허가 등을 바탕으로 **투자유치역량을 집중**해 나가고,

○ 미국('20년초, 실리콘밸리) 등 주요국 대상 **해외IR 활동, 주한 외국기업·단체**와의 원활한 소통* 등을 통해 **추가투자를 유도**해 나갈 예정

* 서울재팬클럽(SJC) 초청 오찬 간담회('19.12.11), 외국인투자 카라반(12.12, 부산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위성원 사무관(☎ 044-203-40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